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대종사·일지암

釋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25일 새벽 5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테마여행단 130여명이 네번째 답사지인 해남 두륜산 대종사(대운사란 원래 이름)를 찾았으나 아직도 대종사라 많이 불리워짐) 입구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뭏든 채 견학지 않은 두륜산 기슭에서 잠시 나오는 맑은 공기, 그 공기에 취한 듯 호호한 얼굴을 내밀며 길을 밝혀주는 달과 이쁨도를 새들의 지저귐은 선지식의 지상한 인도인 듯 편안으로 물가를 권유한다. 대청의 호방형속에 조화로운 불교의 정서를 깊숙히 간직하고 있는 대종사 일지암을 향해가는 마음들은 그저 어여할 뿐이었다.



명월불러 촛불삼고  
우름불러 명풍치고  
대람소리 천구삼아  
차미시던 초의스님

○초의스님이 40여년 동안 주석하며 자연을 벗삼아 선다림이 사상을 꽃피운 초정(神淨) 일지암. 일주 주변의 차나무가 초의스님의 차정신을 일깨운다.

‘禪茶一如’ 초의스님 자취 물씬

대종사로 들어가는 10리 숲길에 어우러진 락나무, 맞나무, 단풍나무는 현아리로 장관이었다. 두륜산에서 내려오는 여러계곡이 대종사에서 만나 제법 큰 내를 이루는 이곳은 '너푸네'라고 불리었다. 이 숲이 대종사 경내의 무량지(無量池)까지 뻗어 있다. 대종사 입구 좌안교를 건너 '두륜산 대종사'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현량문을 지나면 길 오른쪽으로 고승의 사리탑과 비석이 즐비하게 늘어선 부도암을 만난다. 이곳에는 서산대사(1519~1605)이며 초의스님까지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 남몰이 모셔져 있다. 1605년 서산대사가 묘향산 원적암에서 마지막 법랍을 마치고 제자 사명당과 치열스님에게 달신의 의발(遺鉢)을 두륜산에 물 것을 유언했다. 현재 서산대사의 금반기사와 발우가 대종사 서산대사 유물관에 모셔져 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단이 새로 지은 법당에서 여연스님의 자담의를 경청하고 있다.



바위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끼여본 지나면 보물 제3호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북미봉에 도착한다. 북미봉의 용화암 일대로 멀리 완도 앞바다가 펼쳐진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가없는 푸르름의 바다는 깨달음을 향한 해안을 가질 것을 던지시 듯촉한다. 내려오는 길에 구 유명한 유선여관의 진돗개 노랑이를 만났다. 대운산 일대를 거닐다가 뛰어다니며 등산객들의 길을 안내한다는 노랑이는 건네주는 음식을 맛있게 받아먹으며 강행군으로 지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풀어주었다.

대종사 13 대종사 13 대강사 부도 모셔 산등성 야생차향에 방문객 시름덜고...

옆에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 놓았다. 5월의 문화인물 초의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대종사와 여연스님은 추모재와 특별기회찬 등 많은 문화행사를 주회하기도 했다. 때로는 명월을 불러다가 촛불로 삼고, 흐르는 구름을 불러다가 병풍을 삼으며, 대슬 스치는 소리 소나무 소리 바람부는 소리 친구로 삼아서 말을 걸어 차를 마셨던 초의스님은 학문으로써 선교를 연구하고 유학과 도교에까지 지식을 넓혔다. 또 다산 정약충, 추사 김정희 같은 당대의 대학자들과 교류하고, 떨어져 가던 우리의 저 문화의 일익(一翼)과 같은 명지를 남겼다. 이런 교류 때문인지 대종사에는 추사 김정희의 무량수각 현판, 원고 이공사의 대운보전 현판, 정조 대왕의 어필사액 표충사 현판 등 명필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초의스님이 보내준 차를 받고 그 계략으로 보낸 화대의 명필 '명선(茗禪, 간송미술관 소장) 차를 마시며 상성이 든다'의 의미를 잠시나마 느끼며 발걸음을 북미봉으로 옮겼다.



○대종사 입구에 있는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들

여연스님 (일지암 원주)



초의선사 (1786~1866)가 근 40여 평생을 독처지관(獨處止觀)하며 살았던 일지암. 남종화(南宗畫)의 대산인(大山人) 소치(小池) 하유이 그의 스승으로 보았던 선사의 모습을 <명연록(夢緣錄)>에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지암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이 머무는 곳은 두륜산 꼭대기 아래이다. 소나무 숲이 있고 대나무 무성한 곳에 몇 칸의 초실을 엮었다. 늘어진 벼들이 처마에 닿아 있고 풀꽃이 싱그러워 가득 차서 그늘이 뒤얽혀 있었다. 뜨락 가운데는 상하의 못을 파고 처마 아래에는 크고 작은 풀밭을 놓아 두었는데 대목을 연결해서 멀리서 구름비단 생물을 끌어들었다..."

일지암 초의선사 40년 수행처 '동다송' '다신전' 등 명저 저술 우리차 우수성 일깨운 '茶고향'

술하였던 것이다. 초의선사는 <선문사변만어(禪門事變萬어)>를 통해 수행상의 문맥인 광명 선자를 개관한 관 일제삼구(觀二丘)에 고학시켜 선의 우열을 가늠하고, 선을 체계화, 이론화하고자 한 백파선사의 선론(禪論)을 비판했다. 초의선사는 또한 종래의 형이상학적 심지법문(心法法門)의 도리에서 나아가 즉사즉리(即事即理)의 선수행을 제창, 일상생활의 현실 토대위에서 선(禪)을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곳 일지암에서 저술한 작업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있다면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이 아닐까 한다. 조선 후기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사대사상이 강한 시기였을 때에도 초의선사는 중국차에 대한 예호와 효모에 가득찬 있는 풍토를 타파하고 동다(東茶) 즉 우리차에 대한 우수성을 말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한 것을 이 저술에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스님은 차를 만들어 추사나 다산으로 부터 중국차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감증을 받기도 했다. 스님의 차담(茶談)과 다도(茶道)는 단순한 차 향연의 의미가 아닌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성일체(茶禪一體)를 통해 제각각 진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체(體)와 용(用), 선(禪)과 교(教), 차(茶)와 선(禪), 나아가 부처와 중생의 모두를 경중(輕重) 한 것으로 융합하여 우주적 실체로 귀일시했던 것이다. 시, 서, 화, 차, 선이 하나의 거대한 화염의 바다로 너무었고 우주적 본성이 인간 삶의 프락에 일체화 되어 그야말로 '산다일미(禪茶一味)'의 옛 향(香)이 꽃피운 것이 일지암 작은 초당이다.

Advertisement for '영비천' (Yeongbicheon) beverage. It features a man in a suit pointing to a microscopic image of bacteria, a bottle of the beverag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immunity. Key phrases include '균사체 보강으로' (Strengthened with bacteria) and '영비천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Yeongbicheon is even better). The product is described as containing probiotics and being suitable for various health conditions.